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지구 기본계획 수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금강 농바우마을을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a Experiential Space Plan
for Activation of the Rural Experiential Tourism
-Case Study on the Geumgang Nongbau Village
Eujae-ri Buri-myun Geumsan-

최자운** · 정대영***

Ja Un Ch'oi · Dae Young Jeong

Abstract

Rural Experiential Tourism is the medium that connect a town and country. Through the form of these Rural Experiential Tourism people live in country sell indigenous products and tourism services. Both people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ir friendship based on mutual trust.

The aim of space planing for experience and development of experience program is make visitors learn many valuable lessons in countryside. So, Two things must discussed closely related. Also it is necessary to mention people to conduct in there. Visitors who live in Gy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come to frequently Geumgang Nongbau village for a day. They enjoy going for a swimming and fishing in Geumgang. In order to activate specialized experience

* 본 연구는 2010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PJ007426)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jauni@hanmail.net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e-mail: artmac@korea.ac.kr

progra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hos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at experience program and organization visitors make stay overnight in village. Also to enhancing village people's income must have agricultural stand and activate village internet site.

주요어(key words): 농촌체험관광[Rural Experiential Tourism],
체험지구[Experiential space], 농촌마을계획[Rural village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관광객들의 여행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여행패턴이 획일적인 대중 관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신대호, 구분기, 2010),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관광은 이전의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농촌과 농업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며 배우는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시 공간은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 문화생활의 측면에서 편리하나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크다. 반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의 보존, 안전한 먹거리 등 도시에서 갖지 못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관광을 통해 도시와 농촌은 각각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해 마을이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도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농촌을 교육 및 학습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광형태는 단지 농촌의 특산물이나 관광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혹은 자매결연 등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관광의 공급자인 농촌마을은 수요자인 도시민들의 관광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만의 고유한 농촌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운영하기 용이한 자원만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윤희정,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함에 있어 마을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공간의 구성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체험지구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고유한 농촌자원을 보유한 농촌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셋째, 대상지의 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농촌 체험지구 기본계획을 모색한다.

넷째, 위의 계획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체험지구의 개념

체험(體驗)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또는 그 과정 및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혹은 감각이나 내성을 통하여 얻게 되

는 주관의식을 말한다(엡센스 국어사전, 2010). 이러한 체험은 공간성,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의 4가지 요소로 구분되어진다(벤 매년, 2000). 여기서 공간성이란 특정 체험 공간에서의 체험을, 신체성은 피체험자가 몸을 움직여 느끼는 것을, 시간성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그리고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유를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체험자는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농촌마을에 체험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농촌마을계획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농촌마을계획은 1950년대 이후에 마을 생산량 확대, 생활 개선의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 충족 욕구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욕구를 수렴하여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점차 지역계획 개념에서 마을 계획으로 변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마을 단위 계획 단위 산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전 시기와는 달리 마을 어메니티자원의 활용,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정휘, 김혜민, 2007).

체험지구 조성계획은 대상지의 농촌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농촌자원이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농업구조의 재편에 해당하는 농지 보전과 자연 생태계의 유지, 환경 보전 등 보전적 성향이 크고, 지역 활성화의 소재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 개발, 산업 진흥, 지역 사회의 질서 형성 등이 요구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한경수, 1998). 이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적 자원(환경자원,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역사자원, 경관자원), 사회적 자원(시설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 활동자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2.2. 체험지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선행연구

농촌마을에서의 체험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 자체로 논의되기 보다는 주로 마을 공간 계획,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방문객의 행동 특성 파악, 체험프로그램 진행 인력의 발전 방안 등의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이루어진 마을공간계획 수립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신상섭, 노재현 & 김현욱(2007)은 궁쥐팔쥐 전래 동화 모티브로 테마공원, 도시와 농촌의 연계, 토속경관의 보전이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전북 완주지역을 대상으로 공간 기본계획 및 세부공간 계획을 도출하였다. 여화선, 김동찬 & 김충희(2008)는 농촌자원의 체계화, 구조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아산시 음봉면 일대의 마을 계획을 도출하였고, 윤영운, 박새봄 & 김용근(2008)은 농어촌 휴양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농촌휴양마을을 제시하여 구체적 마을 조성계획을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수립하였다. 그리고 김상범, 김은자, 이승연, 이승주, 임창수 & 이상영(2010)은 지속가능한 마을 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 자원과 공간계획을 연계한 공간별 마을 계획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농촌 마을 설계와 관련된 논의들에서는 대체로 대상 마을의 현황 및 마을 소재 어메니티자원 파악, 마을의 특성에 따른 공간 설계 계획 및 테마 설정, 그에 따른 세부 공간 계획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마을 내에서의 토지이용 계획 및 방문객들의 동선 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체험지구 조성과 함께 논의되는 체험프로그램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안영철(2002)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하기 위해 안동지역에서의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현황, 특징 등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덕병 & 이해현(2005)은 농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의 체험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각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인배(2006)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체험프로그램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신중진 & 배기택(2008)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유교문화자원 기반의 5개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였다. 요컨대, 각 논문들에서는 다루고 있는 대상지는 각기 달라도 결론에서는 대체로 마을 어메니티자원에 따라 특성화된, 혹은 지역 고유의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체험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 마을 주민들의 주민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체험프로그램 전문 인력 수급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체험지구 조성계획 관련 논의의 궁극적 목표는 체험객들이 농촌 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농촌마을에 방문하여 다양한 자원을 유익하고 흥미롭게 체험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는 것에 있다. 이는 대상지에 대한 체험공간 계획과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체험진행 인력의 확보 문제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논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체험지구 기본계획 후보지 탐색, 대상지 선정, 마을자원 조사, 지역주민과의 면담, 기본계획안 작성, 체험지구 수정안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010년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마을 홈페이지 및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적 체험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12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현장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체험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결과

마을	농가 생활 체험	농사 체험	토속 음식 제조 체험	공예품 제작 체험	전통 놀이 체험	역사 문화 체험	자연 생태 관찰 체험	물놀이 체험	특이 자원
여주 상호리마을	○	×	○	○	○	×	○	○	-
연천 나룻배마을	○	○	○	×	○	×	○	○	-
인제 냇강마을	○	○	○	○	○	×	○	○	뗏목 연구소
영동 금강모치마을	○	○	○	○	○	×	○	○	-
금산 금강 농바우마을	○	○	○	○	○	×	○	○	농바우 끄시기
군산 뜰아름마을	○	○	○	×	○	×	○	○	-
나주 영산나루마을	○	○	○	○	○	×	○	○	-
양평 과수마을	○	○	○	○	○	×	○	○	용늪
무안 백련흑콩마을	○	○	○	×	○	×	○	○	-
봉화 비나리마을	○	○	○	○	○	×	○	○	-
안동 가송마을	○	○	○	○	○	○	○	○	농암 종택
영양 두메송하마을	○	○	○	○	○	×	○	○	-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면서 특이자원까지 보유한 마을은 총 4곳이었다. 이 네 마을 중 뗏목 타기나 늪 생태체험, 그리고 고가 탐방 등은 다른 마을에서도 체험 가능하지만 전통적 형태의 기우제인 농바우 끄시기의 경우 오직 금강 농바우마을에서만 체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을자원의 특징 및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금강 농바우마을을 체험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006년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인 이 마을은 전통민속자원 및 산, 강, 길 등 뛰어난 자연 자원을 두루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상반기 마을 앞 제방공사가 완료되면 마을의 대표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농바우로 이동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마을현황에 따라 개발 여지가 다분한 상태에서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체험프로그램 진행 인력 확보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금강 농바우마을이 체험지구를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을 현장 조사(1차)는 2010년 8월 20일, 21일에 걸쳐 마을 어메니티자원 조사 및 관련문헌¹⁾을 참조하여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였다. 2차 조사는 9월 25일, 26일에 걸쳐 국립농업과학원 박사급 연구원 5인과 금산군청 담당자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금강 농바우마을 체험지구 공간 유형과 시설물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11월 4일 마을 공청회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한 체험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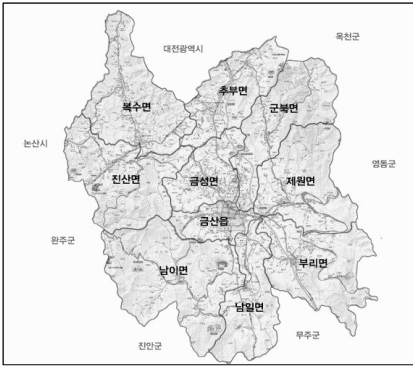
4. 결과 및 고찰

4.1. 금강 농바우마을 일반 현황 및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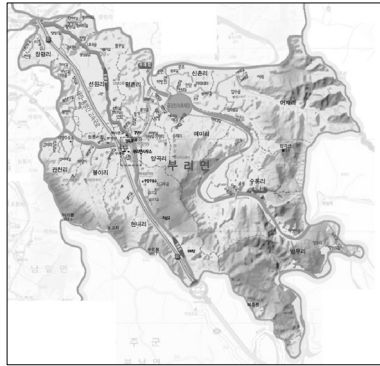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의 일반현황 및 여건은 주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어재리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으로 넘어가는 느리재 서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느재마을과 기러기, 오리 등 겨울 철새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붙여진 압수(鴨水)마을로 구성된다.

1)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농촌어메니티 활용유형별 마을계획지침*. 수원: 농촌진흥청.

이곳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금산군 부동면 땅이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 때 부북면의 용화리 일부를 병합되었고 현재는 금산군 부리면에 속해있다.



〈그림 1〉 충남 금산군 지도



〈그림 2〉 충남 금산군 부리면 지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국도 37호선이 통과하면서 영호남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내륙산간지형으로, 마을 뒤로 양각산, 성주산이 있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다. 어재리 경지 중 전(田)은 35km², 답(畓) 48km², 과수원이 7.5m² 등이다.

금강 농바우마을은 전체 69호로, 전체 171명 중 남성은 80명, 여성은 91명이다. 마을 주요 성씨로는 구례 장씨가 가장 많고 그밖에 각성반이가 살고 있다. 전체 69호 중 67가구가 토박이이며 외지에서 귀농하여 살고 있는 가구가 2가구 있다. 연령층은 80대가 20여 명, 60~70대가 110여명, 50대 이하가 40여 명 정도 된다. 이 마을에서는 시설 딸기 등 고부가가치 농사를 경영하고 있어 부리면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편으로 인근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젊은 층이 많다. 이 마을의 주작목은 고

추, 딸기, 수박, 인삼이며, 농가에 따라 벼농사와 배, 매실과 같은 과수 농사를 하고 있다. 마을 생산물은 수집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그림 1, 2〉).

금강 농바우마을의 일반 현황을 입지교통여건, 자연·인문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강 농바우마을 일반현황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잠재력(기회요소)	활용 및 개선방안
입지 교통 여건 분석	접근	-경부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KTX, 37번 국도 통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에서 접근 가능	-통영 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통영대전고속도로 이용 시 영남권에서도 접근성 향상 기대	-마을 진입까지의 도로의 확장, 포장 필요 -고속도로 금산 IC에서 접근성 제고
	주변 관광 자원	-배정어탑, 덕산사, 청풍사 등 주변관광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 전국하프마라톤 대회 개최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 금강민속축제 및 특산물 판매와 연계할 경우 연중 체험객 증가 예상	-청풍사, 덕산사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통해 방문객 증가효과 기대
자연 환경 분석	지형	-내륙 산간형, 마을 앞 금강 소재	-마을 앞 금강, 마을 뒷산의 임도를 마을 랜드마크 요소로 활용 가능	-마을 앞 공터 및 농바우가 있는 곳에 테마에 맞는 체험지구 입지 가능
	식생	-금강 수중 식·생물 및 임도 내 자연환경 등 생태적 가치 높음	-수자원을 활용할 수 생식물의 교육, 체험 공간으로 연계 가능 -임도 활용한 자연생태체험 가능	-마을 앞 금강을 생태 체험 학습공간 활용 가능 -마을 뒷산의 임도, 다랭이논 등 체험공간 조성 가능
	경관	-금강변, 인삼밭, 마을 뒤편 다랭이논 등이 잘 어우러진 토속적 농촌경관 유지 -소나무, 느티나무 등 조림지 형성	-다랑논, 빨래터, 마을 안길 등 전형적 토속 경관 -마을 주변 과수원 등 이벤트 공간 및 마을 앞 공터를 마을축제 마당으로 활용 가능	-금강 제방길과 마을 안길, 농경지와 과수원, 저수지 등 전형적인 토속경관을 보유

인문 환경 분석	토지 이용	-주거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체험공간과 주거공간의 분리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들 커뮤니티 약화	-강변 앞 수서식물, 곤충 등 생태보존계획 및 활용 가능성 모색	-주거지는 친환경마을로, 농경지는 경관농업지로 밭과 과수원은 주제공원과 연계시키며 가용지를 확보
	토지 소유	-토지 소유는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 -마을 앞 정자 옆 300평 정도의 마을 소유지 존재	-대부분 사유지이나 지장물 등이 작고 지가 또한 주변 지역보다 다소 저렴함	-공공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최소한의 토지 매입과 개발 방침을 인도시킨 토지이용

4.2. 금강 농바우마을의 마을자원 분석

마을 환경자원으로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금강이 있다. 마을 앞 강변의 폭은 30m 정도 되고, 강변으로 갈대 등의 수생식물이 있고, 강에는 모치, 붕어, 우어, 가물치, 쏘가리 등의 토종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어종이 풍부하다 보니 사계절 내내 충남지역 인근에서 낚시꾼들이 자주 이 마을을 찾고 있다.

자연자원으로는 마을 뒷산에 13.5km 구간의 임도가 있다. 이 임도 중간 부분에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관계로 6·25 당시 빨치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역사문화자원으로 마을 중앙 부분 마을회관 앞에 정자가 하나 있고, 신앙공간으로 마을 뒷산으로 산신당, 할아버지탑, 할머니탑, 그리고 마을 안쪽으로 농바우 등이 있다.²⁾ 산신당은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할아버지탑과 할머니탑은 깊은 산중에서 출몰하는 호랑이로 인한 피

2) 농바우마을 신앙공간과 관련해서는 아래 책을 참조하였다. 한창균, 이필영, & 이해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금산군. 대전: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51.

해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 할아버지탑은 높이 150cm, 둘레 860cm이며, 머릿돌은 높이 96cm 정도 되고, 할머니탑은 높이 150cm, 둘레 830cm이며, 윗돌은 55cm이다. 이 탑들에 대한 제사는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생기복덕을 따져 선출된 제관 주도로 이루어진다. 제물(祭物)은 마을에서 쌀 한 공기씩을 거두어 부정이 없는 집의 쌀과 바꾸어 준비한다. 제사의 순서는 헌작(獻酌), 독축(讀祝), 소지 올리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소지는 산신, 용왕, 천신, 대동, 개인 소지의 순서로 올린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포를 각 탑의 머릿돌에 끼워둔다.

마지막으로 느재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400m쯤 떨어진 시루봉 중턱에 있는 농(籠)바우이다. 이 바위는 반단이 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모내기 등의 때에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기우제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기원 형태는 바위에 줄을 연결하고는 그 줄을 잡아 당겨 그 바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바위가 떨어지게 되면 천지가 개벽한다는 속신이 있는데, 하늘에 농바우를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여 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원 형태는 한 바탕 바위를 끌어당긴 뒤 농바우 아래의 물가에서 키로 물을 까붙면서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때 짓궂은 여자들은 이왕 젖은 옷을 아예 벗어 던지고 키 까부는 것에 열중한다. 여자가 옷을 벗고 키로 물을 까부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므로 역시 하늘에서 노하여 비를 내린다고 믿었다.

농바우 기우제는 '농바우 끄시기'라는 이름으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 32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놀이 순서는 행사에 맞게 다듬어졌는데, 비를 기원하며 병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거꾸로 매다는 물병 매기, 집집마다 추렴한 짚으로 지름 20cm, 길이 200m의

동아줄을 꼬아 농바우에 거는 용줄 매기, 마을 아낙들이 농바우에 도착하여 비 오기를 기원하는 산제(山祭), 그리고 농바우 아래 계곡물에 아낙들이 옷을 벗고 떼지어 들어가 키로 물을 까부는 날곳이 등으로 구성된다.

경관자원으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옆으로 펼쳐진 다랑논, 임도로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에 형석을 캐던 형석굴, 6·25의 비극이 전해오는 원통골과 뒷골, 방개골, 경골, 농박골, 가재골, 매희댕이 등의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마을 앞 금강변의 갈대, 임진왜란 때 왜적의 진행 속도를 막기 위해 강물에 황토를 뿌렸다는 유래가 있는 부라리, 마을 앞 금강의 자연섬인 터심개와 같은 하천경관, 다양한 수종이 있는 산림경관이 주목할만하다. 시설자원으로는 마을회관, 종합체험관, 인삼가공체험장, 민박집, 빨래터 등이 있고, 경제자원으로 마을 토박이들의 모임인 구례 장씨 친목계가 있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금강 농바우마을의 일반 현황 및 어메니티 자원을 파악한 결과, 이 마을에서 체험과 관련된 공간은 종합체험장을 기점으로, 인삼가공 체험장, 농산물 집하장, 시냇가 주변의 공간, 종합체험장에서 농바우가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강변길, 제방길(2011년 초 완공 예정), 그리고 마을 안길 공간, 종합체험장에서 임도로 가는 길 양쪽으로 위치한 과수원 공간 등이 특성에 맞게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상에서 본 마을자원들 중 중요 자원의 사진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금강 농바우 임도

<그림 3> 금강 농바우마을 어메니티자원

4.3. 금강 농바우마을의 체험프로그램 현황분석

체험지구 조성계획은 대상지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진행할 있는 인력에 대한 논의가 선결된 뒤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금강 농바우마을에서 앞으로 활동 가능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마을은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지정된 후 올해로 5년째 마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농바우마을의 방문객은 90% 이상이 가족 단위의 당일 방문객으로 주로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한 편인데 특히, 여름 휴가철에 방문객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농사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등과 함께 마을 앞 금강에서 물놀이, 낚시를 주로 한다. 낚시를 오는 사람들은 강변의 여유 공간에서 야영을 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장, 이장 등 마을 지도자들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들은 과수농사나 벼농사 등 생업이 있는 관계로 방문객이 몰리는 여름철 등에는 참여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바우마을 내 주민 조직으로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다. 관광객들이 마을에 방문할 경우 진행프로그램 관련 업무분담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며, 부녀회는 음식 만들기 외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노인회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바우마을에서 진행 중인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봄에는 농사체험, 갯바우 적벽대전 체험, 농바우 끄시기체험, 숲길 트러킹, 밤친구 밤마실 체험이, 여름에는 농사체험, 갯바우 적벽대전, 농바우 끄시기 체험, 그리고 비단강 생태체험이 포함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앞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수확체험과 도리뱅뱅이 요리 만들기, 짚풀 공예 등이 이루어진다.

마을 지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체험프로그램들 중에서 체험객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체험프로그램은 여름철 마을 앞 금강변 수심이 얇은 곳에서 다슬기 줍기, 민물고기 잡기 등의 물놀이 체험과 농산물 채취 체험, 그리고 인삼 어죽 만들기, 도리뱅뱅이 만들기 등의 향토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채취의 경우 봄에는 고사리 꺾기, 여름에는 수박 및 인삼 수확, 가을에는 밤 줍기, 겨울에는 시골 딸기 따기 등을 주로 한다.

농바우 마을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에 사무장을 공채할 예정이며, 사무장은 마을 홈페이지 관리, 체험객 예약 접수, 일정 조율,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주민조직에서도 내년부터는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마을 부녀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손두부 만들기, 인삼 어죽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마을 청년회에서 자신들이 재배하고 있는 과수원에서의 농산물 수확 체험, 농바우 끄시기 체험 등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들의 숙소는 마을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여러 가구에서 민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무장 및 마을 젊은 층의 참여, 그리고 마을 내 민박시설이 갖추어진다면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농바우마을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금강) 및 농바우, 임도 등 마을이 보유한 특색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변공간의 경우 물놀이 외에도 수서식물 및 곤충 관찰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여름철 물놀이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마을의 역사자원인 농바우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3.5km에 달하는 마을 뒷산 임도는 산세가 수려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매년 5월 전국마

라톤협회 주최 금산 느재 팬티산악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MTB 및 사륜 오토바이 대회 등이 연중 열리고 있으나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입도에서 어떠한 체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단위 당일 방문객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마을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단체 방문객도 적극 유치한다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을에 관계없이 물놀이나 낚시를 위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4.4. 금강 농바우마을 체험지구 기본계획

본 장에서는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안과 주민의견을 절충하여 최종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농바우마을의 어메니티자원으로 농바우, 금강, 입도 등을 중심으로 공간계획 및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4.4.1. 기본구상

농바우 마을의 대표적 활용자원을 마을의 경관자원인 금강, 역사자원인 농바우, 특산물자원인 인삼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관자원인 금강은 마을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서 기존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수변생태공간과 생태체험공간을 계획하였다. 역사자원인 농바우는 관련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산물자원인 인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을자원과 연계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그림 4〉).



〈그림 4〉 금강 농비우마을 기본구상

4.4.2. 마을체험공간 계획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체험공간 계획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종합체험관, 인삼가공 체험시설, 농산물 집하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특성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대, 물놀이 체험장 등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그림 5〉). 마을회관 앞 부지(④)는 약 300여 평 규모로, 마을 공동 소유의 부지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계획안은 부지 앞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여 물놀이 체험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절에 따라 수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물놀이체험은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삼가공체험공장(①)과 체험관(③)앞 부지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체험동선의 연계성을 높이고, 마을회관 앞 부지에는 마을회관이 인접하다는 여건을 반영하여 마을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한다. 마을체험공간은 입지적으로 마을 초입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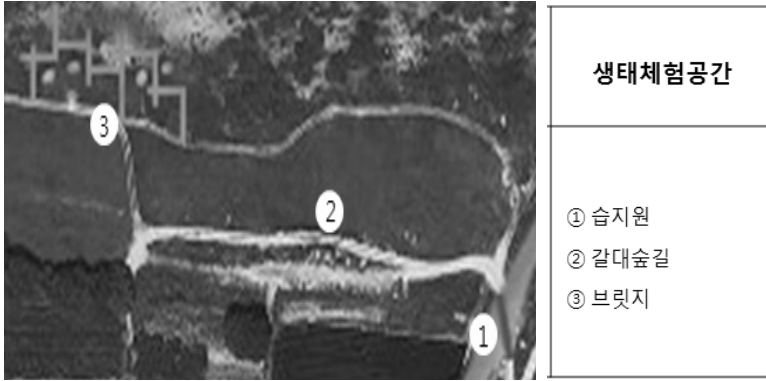


〈그림 5〉 마을체험공간 계획안

4.4.3. 생태체험공간 계획

수변생태체험을 위한 생태체험공간에는 수생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보행데크(①)를 설치하고,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그림 6〉). 현재 금강변의 식생경관은 생태적으로 양호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고, 무리하게 개발할 경우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간 계획을 통해 갈대, 물억새 등 수서식물과 여러 종류의 수서 곤충, 어패류 등의 수변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여 위치는 수심이 얇고 유속이 약하며, 식생이 양호한 공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안내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브릿지(③)를 설치할 계획이다. 생태체험공간은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농바우 마을의 수요

층이 가족단위가 많다는 점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생태체험공간 계획안

4.4.4. 수변체험공간 계획

금강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변체험 공간은 경관적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적벽대전체험장, 야생화군락지, 수변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그림 7〉). 수변체험공간은 금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선적인(linear) 부지로서 다양한 동선계획과 연계하여 설계하였다. 현재 수변체험공간에는 홍수 방지를 위하여 제방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1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제방공사가 완료되면 강변 안쪽의 비닐하우스 등 농지공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마을 안쪽에 위치한 농바우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강변으로 낚시나 물놀이를 오는 방문객들을 마을로 유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과 마을과의 관계를 결속시키기 위해 수변체험공간에 제방길 램프(③), 공동화장실(④) 등 편의시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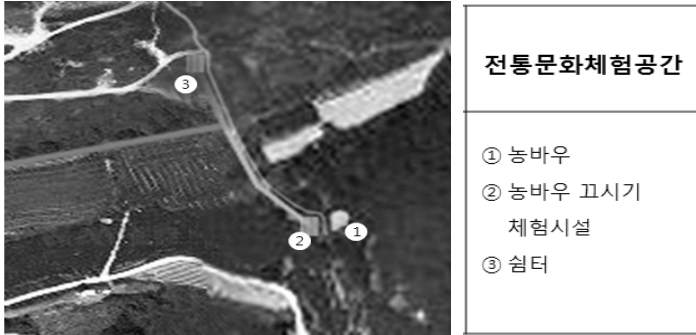
경관개선을 위한 야생화 군락지(⑤)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야생화 군락지에 식재하는 초화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침수를 고려하여 물에 잠겨도 문제가 없는 식물을 심어야 하고, 향토 수종 위주로 선정하여 기존의 자연식생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며, 옛 마을의 향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식물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림 7〉 수변체험공간 계획안

4.4.5. 전통문화체험공간 계획

농바우 마을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농바우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전통 문화체험공간에서는 농바우 관련 안내판과 쉼터를 조성하고, 농바우에 두 가닥 정도의 줄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줄을 당겨보면서 ‘농바우 끄시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그림 8〉). 또한 농바우 아래 쪽 시냇물이 내려오는 곳에 소류지를 만들고 물을 가득여 여름철이면 방문객들이 이곳에 직접 이곳에 들어가 농바우 끄시기 체험의 2단계인 키로 물을 서로 끼얹으며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일 년에 한번 정도 마을행사로 이루어지는 ‘농바우 끄시기’를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연중 체험객들에게 마을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8〉 전통문화체험공간 계획안

예비·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금강 농바우마을의 체험지구 계획의 핵심은 마을 보유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한 방문객 유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토대로 마을 여건에 맞는 체험지구 조성 기본계획과 주민의견, 그리고 기본계획과 주민의견을 절충한 결과를 시설물 중심으로 계획한 최종계획안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금강 농바우마을 체험지구 최종계획(안)

구분	기본 계획	주민 의견	관련 시설물
마을 체험 공간	주 이용계층이 가족 단위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놀이, 교육과 관련된 체험시설 조성	가족단위 체험객들의 휴식,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종합체험관, 인삼 가공체험시설, 농산물 집하장, 어린이 수영장, 농산물 판매대 등
	1) 관광객들의 물놀이 체험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장, 탈의실 등)과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야생화 정원 계획 2) 아동들이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설치	1) 정자 옆 마을공동 소유의 땅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조성 계획 2)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은 체험관 앞에 10평 정도의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 하천에도 바닥처리를 하여 물놀이에 용이하도록 할 예정	게이트볼장, 주차장, 쉼터 등

생태 체험 공간	1) 갈대류 및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지구를 조성 2)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슬기 잡기 등 체험프로그램의 안내판 설치	1)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공간보다는 마을 인근부지의 식생이 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2)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찬성	안내판, 습지데크, 수생식물 군락지, 브릿지 등
수변 체험 공간	현재 제방 아래쪽 공간이 유희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양호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기능 부여하고 농바우 끄시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	제방 길에서 아래 부지로 이동하는 램프 주변에 공동화장실, 간이매점 등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절에 따라 초화류를 식재한다면 경관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공동화장실, 안내판, 보행로, 야생화 군락지, 쉼터, 제방길 램프 등
전통 문화 체험 공간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농바우 체험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농바우가 현재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농바우체험시설, 안내판, 소방담(소류지)

5. 결 론

2006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올해로 5년째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금강 농바우마을에서는 농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진행, 인터넷을 통한 마을 홍보 등 여러 가지의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사업들 중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농바우마을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이 보유한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거쳐 체험지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체험프로그램 진행인력 및 체험지구 기본계획을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각각의 마을 자원들을 그 특성에 맞는 체험공간으로 계획하여 하나의 체험 지구로 묶어냄으로써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농촌관광 관련 연구에서 체험지구 관련 논의는 대부분 농촌 마을 계획이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의 논의 속에서 부가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그 자체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본 연구는 체험지구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 후보지가 한정적이고 체험지구 기본계획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앞으로 농촌에서의 체험지구 기본계획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호법령 내에서의 생태경관보존지구, 문화예술진흥법 내에서의 문화지구와 같이 농촌에서의 체험지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농촌마을 체험지구 기본 실태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체험지구 내 체험공간에 대한 유형 분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 고종화, 김중은, 이승근, 이충기, 이태희. & 김태균. (2002) *체험관광 실태조사 및 수요예측방안연구*. 서울: 한국관광공사.
- 김상범, 김은자, 이승연, 이승주, 임창수. & 이상영. (201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7(1), 16-22.
- 노용호. & 조록환. (2006). 농촌관광자의 시장세분화 연구. *관광·레저연구*, 18(2), 296-298.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설계기술현장 적용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농촌어메니티 활용유형별 마을계획지침*. 수원: 농촌진흥청.
- 문선희, 박덕병. & 김경희. (2009) 제주 농촌관광 방문객의 체험프로그램 선호 및 만족도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4), 23-34.
- 박덕병. & 이혜현. (2005). 마을별 농촌관광 체험활동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농촌관광연구*, 12(1), 149-155.
- 박윤호. (2003)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의왕: 농업기반공사.
- 밴 매년 (신경림 역). (2000). *체험 연구*. 서울: 현문사.
- 신대호, & 구분기. (2010) 강원권역 그린투어리즘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Pp. 73-86).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 신중진. & 김희경. (2006).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5(4). 14-20.
- 신중진. & 배기택. (2008).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운영 과제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1), 188-192.
- 신상섭, 노재현. & 김현욱. (2007).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84-89.
- 송광인. (2005)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여행학연구*, 22(1), 94-106.
- 안영철. (2002) 전통예절과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구-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학회지*, 4(4), 112-118.

- 여화선, 김동찬. & 김충희. (2008). 아산시 음봉면 농촌마을 조성계획. *농촌계획*, 14(3), 92-96.
- 윤영운, 박새봄. & 김용근. (2008). 농촌 휴양마을 조성과 마을의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농촌관광연구*, 15(2), 79-90.
- 윤희정. (2008). 도시민의 농촌어메니티자원 체험욕구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1), 28-37.
- 이인배. (2006). 농촌체험관광 실태분석과 과제. *농촌관광연구*, 13(1), 173-184.
- 정휘. & 김혜민. (2007). 농촌마을계획과 실행의 차이분석. *농촌계획*, 13(3), 95-100.
- 조영숙, 이문주. & 조록환. (2009). 농촌체험마을의 관광자원 해설인력의 행태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6(3), 587-614,
- 조재환, 김태균, 박시현. & 박준형. (200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394-400.
- 최영창, 박영식. & 이은영. (2007). 청소년 농촌체험 관광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4(1), 166.
- 한경수. (1998). 농촌마을 수준의 지역자원 평가시스템 개발, 광주: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한창균, 이필영. & 이해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금산군*. 대전: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논문투고일: 2010. 10. 13
 1차수정일: 2010. 11. 30
 게재확정일: 2010. 12. 10